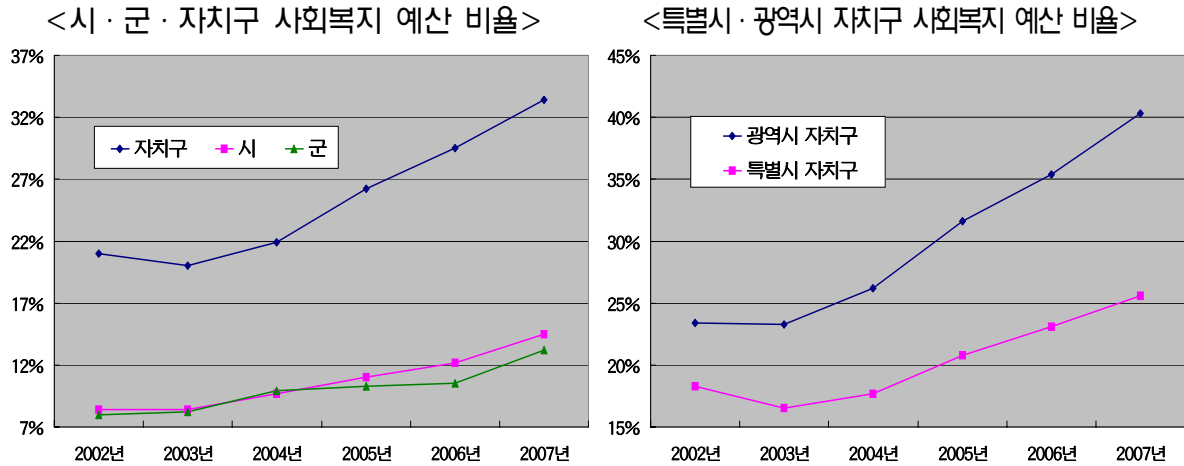




2)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재정부담 증가

지난 5년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매년 평균 13.3% 증가하고 있다. 이를 국고보조금과 지방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 국고보조금은 매년 평균 12.3%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부담금은 매년 평균 15.5% 증가하여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. 즉, 최근에 급증한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들은 대부분 서울/지방간 국고보조율이 상이하다. 예컨대 “영유아 보육사업은 서울20/지방50”, “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·의료급여·자녀교육급여)은 서울50/지방80”, “장애수당은 서울50/지방70”과 같이 서울지역의 국고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. 그런데, 이러한 국고보조사업들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서울 자치구에서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지방 전체 차원에서 보면 지방부담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. 한편, 총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7.7%에서 2007년 12.1%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.